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2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6월 5일 (음력 5월 3일) 수요일

무안군, 양파 팔아주기 '팔 걷고 나섰다'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15% 과잉생산돼 가격 불안정

유관기관 연계 '양파-DAY' 지정 등 소비운동 전개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군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불안정한 양파 판매를 위해 분주하다.

무안군은 중·만생종 양파 수확기를 맞아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양파 소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우선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31t의 양파를 구매키로 하고 우체국 쇼핑내 온라인 판촉으로 300t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또 교육청과 경찰서, 농협 등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 등과 함께 200t을 포함 531t의 양파를 이 달까지 소비·판매해 양파소비 촉진과 가격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올 양파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은 다소 줄었지만 기후와 강우량 등 생육조건의 도움을 받아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 약 15%의 과잉생산이 예측된다.

양파시장도 지난 3년간 저장 양파가격이 불안정해 중간 유통인들이 장기저장을 꺼리고 소규모 직거래로 돌아서면서 예년에 비해 포전거래마저 끊긴 실정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발빠르게 양파소비촉진 및 판매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도시와 박람회 등 직거래, 전국 도매시장 중도매인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또 지역내 1281개소 요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양파김치와 장아찌 등을 담가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매월 3·13·23·30일을 '양파DAY'로 지정해 자체 소비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지역 출신 서삼석 국회의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해 과잉 생산된 양파 시장격리와 정부수매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과 양파 산지폐기시 농가 부담금 지원, 양파 팔아주기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양파가격 안정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매와 소비촉진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덥기 전에…" 지난 4일 강진군 작천면 들판에서 한낮 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들로 나온 농부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모내기를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글로벌 홍보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섭 광주시장,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광주수영대회, 가장 안전한 대회로"

광주시, 대테러종합훈련 실시…8개기관 800여 명 참여

드론 공격·화학테러 등 가정해 수습·복구 작업 실시

이용섭 시장 "광주 찾은 선수·임원 안전에 최선 다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대테러 종합훈련이 4일 오후 1시30분 광주염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광주전남지역테러대책협의회, 광주시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은 국정원, 광주지방경찰청 및 광주소방안전본부, 군 707특임부대 및 31사단,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서구, 광주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등 8개 기관 800여 명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테러대책협의회 소속 기관장, 주한외국공관대표단, 광주광역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등 400여 명이 참관했으며, 자원봉사단과 일반시민들도 참여했다.

훈련은 ▲테러정보통합센터 위해 첩보 입수 및 테러경보 상향조정 ▲폭발물 탑재 드론 공격 ▲선수단 탑승차량 탈취 ▲테러범의 관람객 인질 억류 ▲사린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광주시 수습 및 복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테러센터는 광주 현장과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상황조치 훈련을 병행해 전개했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대테러센터가 실시간 화상회의 및 팩스를 이용해 각 기관의 상황실로 송출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했다.

이날 대테러 종합훈련을 참관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전남지역 대테러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은 "지역 민·관·군·경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광주를 찾은 선수와 임원,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지하철 2호선 역사 출입구 단 1곳 '안전불감증' 논란

광주시청·상무지구 역사 1곳

다른 역사도 대부분 2곳 설치

대형 재난시 승객대피 늦어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일부 역사의 출입구가 단 1곳만 설치되는 곳이 있어 재난시 승객 대피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은 44개 역사로 현재 1단계 구간인 시청역~백운광장~광주역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2단계 광주역~일곡지구~광주시청 구간은 설계중이고, 3단계 백운광장~효천역 구간은 아직 설계를 발주하지 않았다.

2호선 1단계 구간은 모두 20개 역사를 계획중인데, 광주시청 앞과 상무지구 BYC건물 인근 역사의 출입구는 단 1곳으로 설계됐다.

이 두 곳의 역사 출입구는 도로 양 옆의 인도변에 설치하는 것과 달리 도로 중앙에 설치돼 승객들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출입해야 한다.

문제는 전철 내부나 지하역사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출구가 단 1곳 밖에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 등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비춰 재난을 대비한 안전장치와 출입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청과 상무지구를 제외한 2호선 대부분의 역사 출입구도 도로 양 옆에 1곳씩 2곳 뿐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학생과 시민들로 만원을 이룰 수 있어 재난 대비책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역사 출입구는 기점인 녹동역을 제외하고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7곳까지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은 중전철인 1호선과 달리 경전철로 평균 승강장 길이가 30m 밖에 되지 않아 출입구가 많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현재 사업비로는 2호선 출입구를 확대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은홍 기자

현충일 휴무로 다음 호 10일자 발행합니다